

女高生の衣服行動과 誇示 및 自律欲求와의 相關研究

—衣服의 誇示性, 流行, 校服自律化를 中心으로—

沈 昭 延·姜 蕙 遠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衣生活學科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Behavior and Needs for Exhibition and Autonomy among High School Girls

So Yeon Shim and He Won Kah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1983. 7. 19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ive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and needs for exhibition and autonomy among high schoolgirls. Five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were studied: fashion interest, clothing exhibition, attitudes toward the abolition of the school uniform and control of school dress.

A questionnaire of 20 items prepared by Kahng, Lee, and Creekmore was used to assess fashion interest and clothing exhibition. Assessment of attitudes toward the abolition of school uniform and control of school dress was made with questions devised for this study and included several modified items from Kim's questionnaire.

Preferences for fashion style were determined by line drawings representing current fashion and outdated fashion.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341 second year senior high school girls from three types of school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 chi-square test, ANOVA,

The results were:

1) The need for exhibi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clothing exhibition and fashion interest, that is, students who had a higher need for exhibition were more interested in clothing exhibition and fashion.

2) The need for autonomy was positively related to attitudes toward the abolition of school uniform and control of school dress that is, students who had a higher need for autonomy wanted the abolition of school uniform and less control of school dress.

3) Fashion interest was positively related to preference for fashion style, that is, students who a higher fashion interest preferred fashionable styles in the selection of new clothes.

4) Scores of clothing exhibition and attitudes toward loosening of control of school dres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ree types of school.

The orders from highest to lowest are following: single-sex preparatory, coeducational preparatory, vocational high school.

I. 緒 論

衣服은 人間이 형성한 문화유산으로써 인간 생활영역에서 獨特한 價値觀과 生活樣式을 반영하여 준다. Roach와 Eicher에 따르면 衣服의 表現的 기능에는 감정적 측면과 전달적 측면이 있는데 衣服을 통하여 우리는 각자의 獨特한 신체적 특징 또는 美를 강조함으로써 개성을 表現한다. 또한 우리는 衣服의 道具的 기능을 이용하여 개개인의 目的 달성에 적합하도록 衣服을 합리적으로 사용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83년부터 실시된 '교복자율화'에 따라 衣服의 역할은 청소년의 行動과 적응에 있어서 학생 자신 뿐만 아니라, 학교당국, 부모 모두의 관심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研究에서는 '衣服은 개인의 성격을 표현, 반영시킨다'는 Horn²⁾의 서술을 바탕으로 하여 Murray의 성격이론의 중심개념인 欲求와 衣服行動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써, 여고생들의 衣服行動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청소년의 의생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研究의 目的은 ① 여고생들의 衣服 行動과 欲求 변인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② 학교 집단별 衣服行動을 비교하며, ③ 流行에 대한 관심과 流行스타일 嗜好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④ 가설이외의 行動衣服 변인 및 欲求 변인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II. 文獻의 背景

본 연구와 관련된 文獻을 몇 측면에서 要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기의 특징 : Hurlock³⁾은 청년기를 13세부터 16세 까지를 前期, 18세까지를 後期라고 하였으며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시기와 일치한다. 청년기는 身體 및 운동기능이 급격하게 발달하여 개인적 특징이 形成될 뿐 아니라, 청년기 전반에 걸쳐 현저한 性的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異性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心理的 離乳現象을 나타낼 뿐 아니라 때로는 불안함을 느끼고 사회참여를 도피한다. 또한,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 서게 되어 情緒的으로 불

안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社會的 欲求 즉 동료집단의 인정을 바라게 된다.

欲求理論 : 欲求에 대한 이론을 Murray⁴⁾, Hjelle와 Ziegler⁵⁾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Murray는 욕구란 知覺, 統覺, 意欲, 行爲 등의 일반적 行爲를 統合하여 現存하는 불만족 狀態를 어떤 특정한 方向으로 변형시켜 解消시키는 힘으로 두뇌에 存在하는 가설적인 구조라고 定義하였다.

1) 誇示欲求 : 誇示欲求是 남의 印象에 남기려는 것, 남의 注意를 끌려는 것, 남을 흥분시키고 즐겁게 하고 魅惑시키며 衝動을 주고 놀라게 해주려는 欲求이다. 이 欲求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허영과 화려 및 자신감이며, 誇張的, 演劇的, 自己劇化하는 露出的 성격특성 및 態度가 形成된다. 失敗를 두려워하는 屈辱回避의 欲求 및 비난을 무서워하는 비난회피의 欲求와 葛藤되는 欲求이며, 社會的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興行師 및 각종 演藝의 주인공이다.

2) 自律欲求 : 自律欲求是 자유롭게 되는 것, 속박을 벗어나는 것, 감시에서 벗어나는 것, 압박적인 권위에 의해 움직이는 活動을 회피하고 벗어나는 것, 어떤 결정도 남에게 依存하지 않는 것 등으로 마음대로 하려는 欲求이다. 이같은 欲求를 기초로 해서 自主的, 獨立的, 反抗的, 急進的, 否定的, 抵抗的인 성격특성 및 態度가 형성되며, 이것은 또 獨立心 및 無責任感의 감정을 이룬다. 社會적 形식으로는 創造者, 아이디어 메이커 (idea-maker)를 낳기도 하지만 급진적 진보주의자 및 범죄자나 法을 파괴하는 인간도 낳게 한다. 갈등을 일으키는 欲求로는 親愛의 欲求, 비난회피의 欲求, 성취의 欲求가 있다.

衣服行動 : 衣服과 欲求에 대하여, Roach는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存在가 되고자 하는 欲求에서 衣服을 着用한다고 하였다.⁶⁾ Hillestad⁷⁾는 衣服이란 자신의 역할, 性, 社會的 지위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社會的 欲求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自我의 중요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心理的 欲求의 한 예라고 하였다.

流行에 대하여, Horn²⁾(p.145)은 사람들은 동일감과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동조를 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개성을 중요시한다고 하였으며, 流行은 바로 이 두가지 사회傾向 즉 동조와 개성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Wax⁹⁾에 의하면, 10代는 자기 자신의 試驗段階이며自我에 대한 이미지를 아직 발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流行과 fad를 따른다.

衣服의 誇示性에 대하여, Flugel⁹⁾은 인간의 自己陶醉(narcissism)는 裸體의 誇示와 그 힘을 보여주려는 자연적 표현이며, 자기 자신의 신체를 경탄하고 과시하는 것이다. McJimsey¹⁰⁾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려는 欲求는 장식과 衣服을 통하여 충족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Hurlock¹¹⁾은 의복의 과시성의 한 예로, 貴族形態의 정부아래에서는 사회적으로 우월했던 사람들이 衣服을 그들의 誇示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衣服規制에 대하여, Langner¹²⁾에 의하면, 제복은 개인과 그룹과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며, 착용자의 협동정신을 증강시켜 주는 것으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한다. Horn¹²⁾(p.112)에 의하면 제복은 効率的生産, 오래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측면 및 착용자의 의사결정의 노력배제의 장점을 지닌 반면, 아무리 매력적으로 디자인된 제복이라도 쉽게 단조로워지며 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기회가 극도로 제한된다.

最新流行 傾向에 대하여 Vogue¹³⁾ 1983년 1,2,3월호의 유행에 관한 記事와 사진을 분석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82년에 들어서 의복의 유행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변화는 ① 스커트, 바지와 자켓에 있어서 명백히 짧아진 길이 ② 전체적으로 적어진 장식 ③ 넓은 벨트의 사용 등이었다. 자켓과 스커트 및 바지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전반적으로 직선적이거나,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것이었다.

III. 假 說

女高生들의 衣服行動과 欲求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零假說을 설정하였다.

假說 1. 誇示欲求와 의복의 誇示性 및 流行에 대한 관심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을 것이다.

假說 2. 自律欲求와 校服自律化 및 通學服規制에 대한 태도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을 것이다.

假說 3. 학생들의 流行에 대한 관심과 유행스타일의 選好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을 것이다.

假說 4. 학교집단간의 衣服行動 및 欲求변인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IV. 方法 및 節次

1. 測定道具

1) 欲求 및 진단 검사

誇示 및 自律欲求는 9측면의 欲求로 구성된 廣경규¹⁴⁾의 표준화된 여자고등학교用 「유구진단검사」 225 문항中 각각 24문항으로 구성된 誇示 및 自律欲求에 관한 48개 문항을 발제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이 측면의 욕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衣服行動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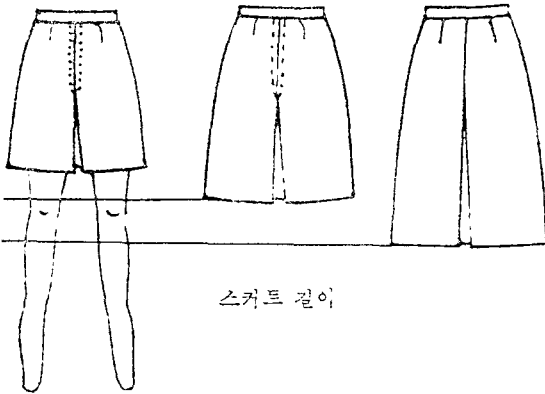
① 衣服의 誇示性 및 流行에 대한 관심: 流行에 대한 관심은 강혜원¹⁵⁾에서 10문항, 衣服의 誇示性은 이금실¹⁶⁾에서 1문항, Creekmore¹⁶⁾에서 1문항을 선택하여 수정 보완 하였으며, 誇示性 8문항은 본연구를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상의 총 20문항은 무작위로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그 측면에 대해 높은 관심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② 校服自律化 및 通學服規制에 대한 태도: 교복자율화에 대한 태도는 10문항으로 심리적 요소, 개성, 경제성, 심미성, 활동성, 학생통제의 측면을 포함한다. 통학복규제에 대한 태도는 5문항으로 전혀 제한하지 않는 것, 너무 비싼 옷 및 옷의 모양, 색, 종류를 자기 제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문항들은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교복자율화를 찬성하며 학교에서의 통학복규제를 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교복자율화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학생 자신들이 직접 기록한 것이 의하여 연구자가 재평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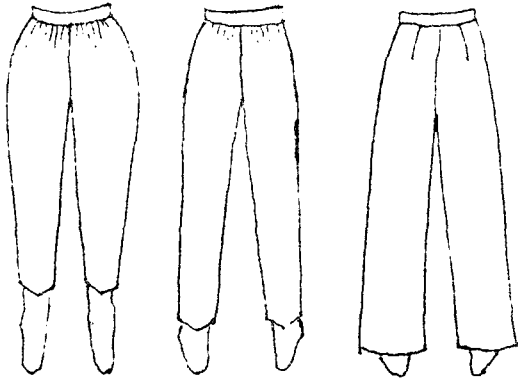
③ 流行스타일의 選好: 유행스타일의 선호검사는 본 연구를 위하여 line-drawing으로 作成되었으며, 1982년 봄의 最新流行情報를 토대로 專門家의 評價를 거쳐 선정되었다. 그 내용은 자켓의 길이 및 허리가 들어간 정도, 스커트의 길이, 바지 모양, T셔츠의 길이, 블라우스의 칼라넓이와 장식에 관한 것이다. 각문항은 <그림 1>과 같이 당시의 최신유행 스타일 3점, 지난해의 유행스타일 2점, 유행이 지난지 오래된 구식스타일 1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衣服을 새로 사거나 맞출때 流行하는 衣服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衣服에 관한 문항은 모두 Likert-type으로 구성되었다.

④ 一般의 衣服選好: 일반적인 의복선호에 대한 문항들은 본 연구를 위하여 line-drawing으로 작성되었다. 그 내용은 자켓의 여밈의 모양, 스커트의 모양, 짧은

바지의 모양, 스커트의 트임 (slit)의 4문항이더 이의에도 투피스, 원피스, 잠바스커트, T셔츠와 바지 차림을 학생들이 通學服으로써 얼마나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보는 문항들이다. 투피스 및 원피스의 선호도 점수가 높을 수록 정장스타일의 衣服을 選好하는 것이며, 잠바스커트 및 T셔츠와 바지의 점수가 높을 수록 그러한 스타일의 衣服을 選好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커트 길이



바지의 모양

그림 1 - 해스타일의 선호

2. 標集對象 및 資料蒐集

標集對象은 <표 1>과 같이 학교의 특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서울 시내 거주 상업계 야간, 인문계 남녀공학, 인문계 여고의 2년생, 총 341명 이었다. 資料蒐集은 說問紙에 의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된 설문지를 1982년 6월에 각학교에서 수업시간 동안 배부하여 실시한 후 총 365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341부가 統計處理에 사용되었다.

3. 研究의 限界點

標集理論에 따라서 정확히 골고루 표집하지 못하였

<表 1> 학교유형별 표집 대상의 수

학 교	명	%
상업계 야간	112	33
인문계 남·녀공학	109	32
인문계 여고	120	35
전 체	341	100

으며, 說問紙의 실증적 자료에 의한 경험적 타당도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V. 結果 및 論議

1. 誘示欲求와 衣服의 誘示性 및 流行에 대한 관심과의 관계

誘示欲求와 衣服의 誘示性 및 流行에 대한 관심과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검증 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모두 意味있는 正의상관을 나타내어 <가설 1>은 否定되었다. 이는 誘示欲求가 높은 사람은 衣服의 誘示性 및 流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30대, 40대 여성이 표집대상인 선행연구 결과²⁾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과시욕구가 많은 사람은 남의 印象에 남고, 남의 注意를 끌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수단으로써 衣服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2> 과시욕구와의 복행동과의 상관관계 (n=341)

독립변인 학교 의복행동 변인	과 시 욕 구			
	상업계 야간	인문계 남녀공학	인문계 여고	전 체
의복의 과시성	.47***	.32***	.46***	.44***
유행에 대한 관심	.39***	.25***	.19**	.26***

p<.01 *p<.001

2. 自律欲求와 校服自律化 및 通學服規制에 대한 態度와의 관계

自律欲求와 校服自律化 및 通學服規制에 대한 態度와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意味있는 正의상관을 나타내어 <가설 2>는 否定되었다 이는 자유롭게 되는것,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自律欲求가 높은 사람일수록 校服自律化를 찬성하며, 학교에서의 通學服規制를 원하지

〈表 3〉 자율복구와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n = 341

의복변인	자 율 복 구			
	상업계 야 간	인 문 계 남녀공학	인문계 여 고	전 체
교복자율화에 대한 태도	.11	.18	.13	.12*
통학복규제에 대한 태도	.01	.22	.25**	.19***

*p<.05 **p<.01 ***p<.001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校服自律化에 대한 10가지 측면에 대한 태도의 문항별 반응분포 결과 전체의 60% 이상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활동성, 개성, 심미성 및 옷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의 4측면이었다.

通學服規制에 대한 태도의 문항별 반응분포결과, 전체의 50%정도가 전혀 제한하지 않는 것에 긍정적이었으며, 옷의 모양과 종류의 제한에 대한 문항에는 50% 이상이, 옷의 색의 제한에는 80%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이는 사춘기 소녀들이 색상과 맞음새(fit)를 衣服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긴다는 Tompson, Morris, Ryan¹⁶⁾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상의 결과는 실제로 고등학생들 보다 학교의 분위기가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되는 인문계 학생들이 校服着用에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標集對象의 40% 이상이 美的 감각 및 개성의 결여, 비활동성을 校服着用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들고, 학생들이 校服自律化가 된다면 색상 제한의 범위를 넓힐 것을 원하였던 김영인¹⁷⁾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校服自律化에 대한 학교유형별 찬·반 의견 차이를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체학생의 71%는 찬성, 22%는 반대라고 있었으며,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表 4〉 교복 자율화에 대한 의견의 학교유형별 차이검증 (χ^2 검증)

학 교 구 분	의견			
	상업계야간 n=112	인문계 남녀공학 n=109	인문계 여 고 n=120	전 체 n=341
아주찬성한다	16%	21%	14%	17%
찬 성 한 다	50	47	64	54
그저그렇다	7	6	8	7
반 대 한 다	27	24	13	21
아주반대한다	0	2	1	1
	100%	100%	100%	100%

$\chi^2=13.39, df=8 p>.05$

개성, 활동성, 해방감 및 올바른 의생활 추구 등이었고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옷에 신경을 쓰는 것, 학업에 지장, 학생의 자부심과 교복에 대한 긍지 및 경제수준의 차이 등이었다.

3. 流行에 대한 관심과 流行스타일 選好와의 관계

流行에 대한 관심과 流行스타일 選好와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인문계 집단 및 표집대상 전체에서 正의상관이 있어 〈가설 3〉은 否定되었다. 이는 상업계 야간을 제외하고는 流行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록 의복을 새로 사거나 맞출때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복을 選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中年期 女性을 對象으로 한 연구결과¹⁹⁾와 일치한다. 상업계 야간의 학생들이 流行에 대한 관심과 流行 스타일 選好에서 意味있는 관계가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夜間 勤勞靑少年은 保守的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²⁰⁾로 설명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流行에 대한 관심의 평균점수는 28점으로 김영인의 연구결과와 비교할때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1981년 교복자율화가 발표된 이래, 매스컬 및 여론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衣服전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상승된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반적인 衣服選好의 결과는 더불어미의 자켓 및 후레어 스커트에 가장 많은 선호를 보였으며, 이것은 본 연구의 標集對象學校의 교복스타일이 모두 싱글어미자켓과 H-line 스커트였으므로, 학생들이 그들의 교복스타일과 다른 형태의 디자인을 입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60% 이상의 학생들이 앞, 뒤 옆에 slit이 된 스커트를 원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의 유행 추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表 5〉 유행에 대한 관심과 유행스타일 선호와의 상관관계 n=341

의복변인	유 행 에 대 한 관 심			
	상업계 야 간	인 문 계 남녀공학	인문계 여 고	전 체
유행스타일선호	.17	.21*	.19*	.18***

* p<.05 *** <.001

通學服으로서의 選好는 T셔츠와 바지에 가장 높은 選好를, 자켓과 프리즈스커트에 가장 낮은 選好를 보였다. 이것은 그당시 1982년 봄에 T셔츠와 디스코바지가 대다수의 여대생에게 가장 流行하였으며, 정장스타일의 校服이 활동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학생들이 流行과 活動性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表 6-a〉 의복의 과시성 평균치의 학교유형별 ANOVA 결과

학 교	상업계야간	인 문 계 남녀공학	인문계여고	전 체
\bar{X}	26.5	28.3	28.6	27.8
SD	5.07	5.68	5.79	5.53
N	112	109	120	341

변량원	자유도(df)	평균자승화	F ratio	P
집 단 간	2	148.5	4.857**	p<.01
집 단 내	338	30.6		
전 체	340			

4. 학교집단간의 衣服行動과 欲求변인의 차이

학교 집단간의 衣服行動과 欲求변인의 차이를 變量分析으로 분석한 결과, 〈표 6-a, b〉와 같이 衣服의 誇示性和 通學服規制에 대한 태도만이 意味있는 차이를 보여 〈가설 4〉는 부분적으로 否定되었다. 衣服의 誇示성은 상업계 야간이 인문계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상업계 야간학생들의 대부분이 생활이 윤택하지 못하고 가정의 사회적 지위가 인문계 학생들 보다 낮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의복을 그들의 誇示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Hurlock¹¹⁾과 McJimsey¹⁰⁾의 진술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通學服規制에 대한 태도는 상업계 야간이 인문계집단보다 낮게 나타나서 상업계야간 학생들이 더욱 通學服規制를 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수준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6. 衣服變因 및 欲求變因 相互間的 관계

衣服變因 및 欲求變因 相互間的 관계를 상관계수로

〈表 6-b〉 通學服 規制에 대한 태도 평균치의 학교유형별 ANOVA 결과

학 교	상업계야간	인 문 계 남녀공학	인문계여고	전
\bar{X}	15.7	17	18	16
SD	3.54	4.37	3.85	4
N	112	109	120	341

변 량 원	자유도(df)	평균자승화	F ratio	P
집 단 간	2	147.2	9.534***	p<.001
집 단 내	338	15.4		
전 체	340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즉, 校服自律化 및 通學服規制에 대한 태도와 流行스타일 選好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意味있는 正의상관이 있었다. 衣服의 誇示性和 流行에 대한 관심사이의 意味있는 正의상관은 이금실¹²⁾의 결과를 지지하며, 流行에 대한 관심과 校服自律化 및 通學服規制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는 流行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이 校服自律化를 좀더 원한다는 김영인¹³⁾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假說이외에 나타난 欲求와 衣服行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誇示欲求是 校服自律化 및 通學校規制에 대한 태도와, 自律欲求是 衣服의 誇示性和 각각 正의상관이 있었다. 이는 誇示欲求가 높을 수록 衣服을 통한 자신의 誇示傾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誇示欲求가 自律欲求보다 세측면의 衣服行動(衣服의 誇示性, 流行에 대한 관심, 校服自律化에 대한 태도) 모두와 더 높은 상관을 보여 誇示欲求是 自律欲求보다 衣服行動에 더욱 영향을 주는 變因으로 풀이 될 수 있다.

〈表 7〉 의복 행동변인 및 욕구변인 상호간의 상관관계

n=341

	유 행 에 대 한 관 심	의 복 의 과 시 성	교복자율화에 대 한 태도	통학복규제에 대 한 태도	유 스타일 선호	과시욕구
의복 행동 변인	유행에 대한 관심					
	의복의 과시성	.44***				
	교복자율화에 대한태도	.34***	.17***			
	통학복 규제에 대한태도	.23***	.18***	.49***		
	유행 스타일 선호	.18**	.22***	.24	.05	
욕변 구인	과 시 욕 구	a	b	.14*	.19***	.4
	자 율 욕 구	.03	.18***	c	d	.05
						.16**

a, b: 가설 1→表 2에서 제시 *p<.05 **p<.01 ***p<.001

c, d: 가설 2→表 3에서 제시

VI. 結 論

첫째, 誇示欲求是 衣服의 誇示性 및 流行에 대한 관심과 正的인 상관이 있었다.

둘째, 自律欲求是 校服自律化 및 通學服規制에 대한 태도와 正的인 상관이 있었다.

셋째, 流行에 대한 관심과 流行스타일 選好와는 正的인 상관이 있었다.

넷째, 衣服의 誇示성과 通學校規制에 대한 태도는 학교집단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結果를 기초로하여,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써, 校服自律化 실시이후, 학생들의 衣服行動에 관한 여러 측면에서의 실험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校服自律化의 장단점이 연구되어서 의복을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학교생활 적응방향 및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신장시키고 審美眼 및 創意性을 기를 수 있는 의생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Roach, M.E. and Eicher, J.R.,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Y.: John Wiley & Sons, 6, (1965)
- 2) Horn, M.J., The Second Skin,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20, (1975)
- 3) Hurlock, E.B.,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 N.Y.: McGraw-Hill, 173-4, (1975)
- 4) Murray, H.A.,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Y.: Oxford University Press, 34~242, (1934)
- 5) Hjelle, L.A. and Ziegler, D.J., Personality Theories, (2nd Ed) Tokyo: McGraw-Hill Kogakusha, 153~165, (1981)
- 6) 이금실,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 7) Hillestad, R.C., "A Schematic Approach to a Theoretical Analysis of Dress as Nonverbal Communi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100~101, (1974)
- 8) Wax, M., Themes in Cosmetics and Grooming, in Roach, M.E. and Eicher, J.R., (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Y.: John Wiley & Sons, 42, (1965)
- 9) Flu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23, 86, 108~9 (1930).
- 10) McJimsey, H.T.,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Ames Iowa: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3, (1973)
- 11) Hurlock, E.B., The Psychology of Dress (3rd Ed) A New York Times Company Arno Press, 30, (1929)
- 12) Langner L., Clothes and Government, in Roach, M.E. and Eicher, J.R. (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Y.: John Wiley & Sons, 124~7, (1965)
- 13) Vogue, Jan., Feb., March, (1982)
- 14) 황정규, 욕구집단검사, 서울: 코리안 테스트 센터 (1965)
- 15)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연세대학교 대학원」, 349~375, (1974)
- 16) Creekmore, A.M.,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Number 783, (1966)
- 17) 김영인,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18)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24, (1966)
- 19) 이영윤,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20) 윤석일, 야간 근로학생들의 가치관 및 의식구조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